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5%~40% 박스권이다. 윤석열 후보 역시 지지율 회복에도 불구하고 40%대에 확실히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하 존칭 생략)

여론조사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하는 선은 40%~45%다. 사실상 양자 대결일 경우는 45%, 다자 대결일 경우는 40%가 기준선이 된다. 실제 역대 대선 의 당선자의 득표율을 보면 13대 노태우 36.6%, 14대 김영삼 42.0%, 15대 김대중 40.3%, 16대 노무현 48.9%, 17대 이명박 48.7%, 18대 박근혜 51.6%, 19대 문재인 41.1%였다. 사실상 양자 대결이었던 16·17·18대 당선자 평균 득표율은 49.7%이며, 나머지 네 차례의 다자 대결 평균은 40.0%였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부동층을 감안하면 다자 대결에서는 40%, 양자 대결에서는 45%를 넘으면 이기는 선거로 본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다자 대결이기는 하나 현재까지는 양자에게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40%가 아니라 45%가 넘어야 할 기준이다.

그럼 왜 40%를 그렇게 넘기 힘든가? 첫 번째 이유는

대선 지지율 40%와 후보 단일화

대선후보의 선거 지지율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에서 당락이나 찬반을 결정짓는 기준은 50%이다. 50%가 만점인 것이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 모두 아울러야 하는 절대평가 지표이기에 100%(점)가 만점이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 35%~40%를 대통령 지지율 40%보다 낮다고 단순 비교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재명의 35~40%대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 40%대보다 더 얻기 어려운 수치라고 봐야 한다. 즉 대선후보의 지지율 40%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40%가 아니라 80%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만큼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은 얻기가 더 힘들다.

두 번째는 국민이 만들어 준 균형과 경제의 운동장이다. 87항쟁 이후 탄핵이나 국정 파탄과 같은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 국민의 이념 분표를 보면 보수·중도·진보가 각기 3분의1 정도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균형과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묘한 황금률이다. 한길리서치 아주경제 1월 4주(22~24일, 1064명 조사로 이하 내용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길리서치 홈페이지참고) 조사에서도 보수 31.0%, 중도 39.9%, 진보 29.3%였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후보가 각 진영의 지지를 모두 모아도 절대 40%를 넘어설 수가 없다. 즉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만 40%를 넘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서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세 번째는 대선후보의 비호감도다. 선두 후보의 호감도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60% 전후인 반면 호감도는 40% 내외다. 후보들 스스로가 40%에 갇혀 버린 것이다. 네 번째는 40% 전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평가가 양극단형이다. 즉 바가지를 얹어 놓은 정규분포가 아닌, 오히려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매우 집합과 매우 잘못함으로 치우친 양극단형 평가다. 특히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높다 보니 높은 정권교체 비율로 나타난다. 한길리서치 같은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0.2%, 정권재창출이 38.9%였다.

이재명 입장에서 문재인 지지율 40%와 40%가 안되는 정권 재창출은 뛰어넘어야 하는 벽과 한계가 된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40%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레임덕 없는 기준으로 여기고 제대 말년 '병장 몸조심하듯' 임기말 관리를 하면 이재명은 더욱 힘들어진다. 또한 문 대통령의 40% 높은 지지율은 윤석열에게도 극복해야 할 벽이다. 단지 그 벽의 높이가 이재명보다는 덜 높다는 것뿐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2중 3중의 벽들이 합집합보다는 교집합으로 작용하여, 지지율의 확장성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균형과 경제의 민심과 고정층은 강고하고, 이를 극복해야 할 후보들은 오히려 비호감도가 높으니 40%가 마의 벽이 된 것이다.

만약 두 후보가 마의 40%대 지지를 끝내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공약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된다. 막판에 안철수와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렇다고 단일화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만약 단일화조차 안 될 경우, 결국은 어느 후보가 이기든 40%를 넘기기는 하겠지만 피 말리는 선거가 될 것이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윤교회 담임목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통이고,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언어 습관이나 태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는 verbal language(입말)와 언 verbal language(unverbal language)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입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말 이외의 다른 요소들, 어떤 상황이나 눈썹을 올리거나 내리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의사소통 이론과 그 연구에 의하면 메시지 자체, 언어 정보는 7%밖에 차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보다는 목소리의 어조, 크기, 얼굴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소통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요즘같이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빈약한 상태에서 의사 전달을 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아울러 서로 간 비대면이다 보니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언어 습관과 태도

싶은 말만 전달해도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최근에 필자가 이모티콘이나 자음만 사용했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큰 낭패를 보기도 했었다.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거나 표현했다가 말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이니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언어 습관 속에는 잘 듣는다는 경청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학창 시절 상담학을 배울 때 대부분 내담자의 문제들은 그들의 말을 잘 들어만 줘도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다. 실제로 필자는 목회자로서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때문에 내담자의 말을 들어만 주어도 힘들었던 마음이 풀리고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데 그간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조언을 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도 아는 분이 나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고 말해 주었다. 약간의 충격이었으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버린 것이었다. 듣는 것보다 말하기 좋아하고 가르치려 하는 습관은 다른 이들과 소통을 방해하고 딱딱히 버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었던 것이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라는 구절이 있다. 잘못된 말이나 표현은 자기의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결국 감정을 상하게까지 한다. 언어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만큼이나 위험하고 악한 것이다. 남녀 노소 할 것이 비속어나 욕설이 들어가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참 많다. 현재 대선 상황을 보면 대화나 토론은 찾아 볼 수 없고 자기 주장과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적인 문자 보내기식인 것 같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되어진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다. 물론 보기에도 좋았겠지만 그 앞서 나온 반목 구절에는 "그대로 되니라"가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을 조금 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셨다. 그리고 보라! 얼마나 선한가!" 이렇게 감탄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본디 인간은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존재였다.

곧 설 명절이 시작된다.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고 웃어른의 덕담을 듣는다. 세배돈에 가려서 덕담은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코로나 시국에 만나기도 힘들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덕담과 인사말을 통해 위로 받고 새 힘을 얻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구약성경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예언과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대하는 바가 그대로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기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 더욱 강화해야



백경수 전남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21국내이비스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체벌 및 가정 폭력 폭격 경험 비율은 각각 25.4%, 37.0%로 2020년 보다 상승했다고 한다. 또한 전체 보호자 중 73.2%가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들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부모의 '코로나 실태' 및 재택 근무 등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정서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아동 학대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사례 관리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8월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뿐 아니라, 학대 발생 이후 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동학대 가정의 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업무 수행 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온 한다. 이에 필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나, 2021년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75개 소만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할 지역 증가가 불가피하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5개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어, 아동 안전 점검을 위한 가정방문 시 왕복 이동 시간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인과, 보호자 및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지만, 환경적 제약으로 적극적인 사례 관리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아동과 보호자의 삶은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과 가정에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성도 더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실천 서비스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동과 가정을 직접 만나는 상담원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직률 및 근무 연수'에 따르면, 이미 2020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평균 이직률은 34.4%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상담원의 업무 부담 및 이탈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에서 발표한 사례 관리 모델 개발과 함께 가족관계 강화와 휴식 및 놀이 관련 등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현장 적용 가능 서비스들이 보완되길 바란다.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인 심층 사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 환경의 변화 또한 동반되어야 아동학대 없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더욱 빨리 실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쓰는 상담원들이, 앞으로도 아동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과 교육 훈련 체계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社說

문체부 '잘못된 인사' 호남 민심 악화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 지역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 국장을 되레 승진 발표했다. 지역문화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경영진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인사 파행과 연관된 인사를 영전시킨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24일자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A씨를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임명했다. A씨는 직제상 고위 공무원 '나'급(2급) 국장인데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전 인사라 하겠다. 문제는 그가 광주 지역에서 '영터리 인사' '보은 인사'로 지탄받고 있는 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과 사장 선임의 실무 책임자라는 데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전당재단 파행 인사에 이은 문체부의 이번 인사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를 소관하는 이병훈 국회의원(광주시 동남구)은 광주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아파트 사고로

그렇잖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전당재단 인사 문제까지 겹쳤다"며 "민심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다뤄야할 정도로 여론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후론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도 "지역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광주 문화·시민 단체들의 결집체인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도 오는 28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인사 철회 여론에 귀를 막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사회의 반발을 아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단 경영진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신안 '염전 노예' 국제 망신 당하지 않도록

신안 '염전 노예' 문제가 또 다시 이슈가 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신안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사건을 파악해 인권보고서에 담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자국에 제출할 인권보고서에 염전 노예 사건을 담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달 인권간담회를 갖자고 전남도에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대사관은 이 자리에서 염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실태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대가를 치렀는지, 인권침해는 없었는지를 따지는 공정무역을 중시하는 나라다. 미국이 염전노예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신안 천일염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공정무역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신안 천일염은 2009년부터 미국에 수

출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197톤이 미국인 밥상에 올랐다. 미국대사관이 인권보고서에 염전 노예 사건을 담을 경우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2014년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됐는데도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신안 염전 노예 문제는 3개월 전 50대 박 오 씨가 신안 한 염전에서 7년 동안 임금 체불과 감금을 겪었다고 폭로하면서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반박되는 염전노예에 문제는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 탓이 크다. 7년 전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 발본색원했다면 또다시 국제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이아말로 정부와 지자체 및 경찰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1905-1980)와 축구 황제 펠레(1940-)가 만날 뻔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강연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사르트르 일행은 경기장으로 향하던 펠레와 우연히 마주쳤다. 먼저 펠레를 알아본 동료 학자들이 사인을 받으러 몰려가자 사르트르는 홀로 남게 됐다. 갑자기 '거리의 단독자'가 된 순간, 세기의 대철학자 사르트르는 정규 교육이라고는 4년 밖에 받지 못한 청년 펠레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들어서 마주친 그 장소에는 '펠레-사르트르 코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한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명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존재가 진정한 인간이라고 했다. 또한 본질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을 말하는데, 인간은 본질 없이 그냥 존재하며 오히려 본질을 만들어 간다고 했다. 인간은 그 자체가 자유이며, 자유롭다는 말은 곧 인간의 행위가 자유롭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이 기계처럼 움직일 때 혐오와 '구토'를 느낀다고 했다. 사

르트르는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무대가 바로 스포츠 경기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축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알베르 카뮈나 장 지로두 등과 함께 축구를 철학과 문학의 소재로 적극 활용했다. 사르트르는 브라질 방문 중 갑자기 마주친 펠레의 존재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꼈는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축구에서는 상대방의 현존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된다."

프랑스 축구 리그1에서 뛰는 보르도의 황의조가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시즌 9호 골과 함께 통산 27골을 넣어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까지 세웠다. 이렇게 되자 보르도 구단은 황의조를 '이적 불가 선수'로 선언했다. 사르트르의 표현대로 메시·호날두·레반도프스키 같은 슈퍼스타의 현존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제부터는 황의조를 상대하는 팀 역시 혼란스러울 것 같다. 황의조는 이번 시즌 9골을 기록, 프랑스 리그1에서 함께 뛰고 있는 발롱도르 7호 수상자 메시가 넣은 1골에 비해 무려 9배나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펠레와 사르트르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